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泰亨
 編輯人: 金命載
 印刷人: 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東大門區德慶1洞112-49
 電話: 244-3717
 對替計座: 010983-31-051319
 郵便番號: 130-091

光復五十週年을 맞으며

新世代的 無分別한 日本文化 迎入을 慨嘆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獨立國임을 외치던 그 날을 想起코자 獨立宣言書를 掲載한다.

獨立宣言文

吾等은 茲에 我朝鮮의 獨立國임을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여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여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歷史의 權威를 仗하여 此를 宣言함이며, 一千萬民衆의 誠忠을 合하여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여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의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改造의 大機運에 順應進하기 爲하여 此를 提起함이니, 是一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이며 全人類共存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沮抑하지 못할지니라. 舊時代의 遺物인 侵略主義 強權主義의 犧牲을 作하여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 箝制의 痛苦를 嘗한지 今에 十年을 過한지라, 我生存權의 剝奪됨이 무릇 幾何이며, 心靈上 發展의 障礙됨이 무릇 幾何이며, 民族의 尊榮

의 毀損됨이 무릇 幾何이며, 新銳와 獨創으로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補裨할 機緣을 遺失함이 무릇 幾何인노.

噫라.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려하면, 時下의 苦痛을 擺脫하려하면, 將來의 脅威를 芟除하려하면, 民族의 良心과 國家의 廉義의 壓縮殘을 與奮伸張하려하면, 各個人格의 正當한 發達을 遂하려하면, 可憐한 子弟에게 苦恥의 財產을 遺與치 아니하려하면, 子孫의 永久完全한 慶福을 導迎하려하면, 最大急務가 民族의 獨立을 確實케 함이니, 二千萬 各個人마다 方寸의 刃을 懷하고 人類通性과 時代良心이 正義의 軍과 人道의 干戈로써 護援하는 今日, 吾人은 進하여 取함에 何強을 措치 못하랴, 退하여 作함에 何志를 展치 못하랴.

丙子修好條規以來, 時時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였다 하여, 日本의 無信을 罪하려 아니하노라. 學者는 講壇에서, 政治家는 實際에서 我祖宗世業을 植地視하고, 我文化民族을 土味人遇하여, 한 征服者의 快를 貪할 뿐이요, 我的 久遠한 社會基礎와 卓犖한 民族心理를 無視한다 하여, 日本의 小義함을 責하려 아니하노라.

자기를 策勵하기에 急한 吾人은 他的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在를 綱繆하기에 急한 吾人은 宿昔의 懲辦을 暇치 못하노라. 今日 吾人의 所任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요 決코 他的 破壞에 在치 아니하노라. 嚴肅한 良心의 命令으로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요 決코 舊怨과 一時的 感情으로 他를 嫉逐排斥함이 아니로다. 舊思想 舊勢力에 羈縻된 日本爲 政治家의 功名的 犧牲이 된 不自然又不合理한 錯誤狀態를 改善匡正하여 自然又 合理的인 正經大原으로 歸還케 함이로다. 當初에 民族의 要求로서 出치 아니한 兩國合併의 結果가 畢竟姑息의 威壓과 差別的 不平等 統計數字上 虛飾의 下에서 利害相反한 兩民族間에 永遠히 和同할 수 없는 怨溝를 去益深造하는 今來實蹟을 觀하랴.

勇明果敢으로 舊誤를 廓正하고, 眞正한 理解와 同情에 基本한 友好的 新局面을 打開함은 彼此間 遠禍召福하는 捷徑임을 明知할 것 아닌가. 또 二千萬 含憤蓋怨의 民을 威力으로 拘束함은 다만 東洋의 永久한 平和를 保障하는 所以가 아닐 뿐 아니라, 此로 因하

여 東洋安危의 主軸인 四億 支那人의 日本에 對한 危懼와 猜疑를 갈수록 濃厚케 하며, 그 結果로 東洋全局이 共同의 悲運을 招致할 것인 明하니 今日 吾人의 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 하여금 正當한 生榮을 遂케 하는 同時에 日本으로 하여금 雅路로서 出하여 東洋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여금 夢寐에도 免치 못하는 不安恐怖로 脫出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로 重要한 一部를 占한 世界平和 人類幸福에 必要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區區한 感情上問題이리오.

公約三章

一、今日 吾人의 此學는, 正義人道生存尊榮을 爲하는 民族의 要求이니, 오직 自由의 精神을 發揮할 것이고, 決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朱하지 말라.

二、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意思를 快히 發表하라.

三、一切의 行動은 尙 秩序를 尊重하여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여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鍊磨長養된 人道의 精神이 바야흐로 新文明의 曙光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新春이 世界에 來하여 萬物의 回蘇를 催促하는 도다. 凍氷寒雪에 呼吸을 閉塞한 것이 彼一時의 勢이라 하면, 和風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이니, 天地의 復運에 際하고, 世界의 變潮를 乘한 吾人은 아모 躊躇할 것 없으며, 아모 忌憚할 것 없도다.

我的 固有한 自由權을 護全하여 生旺의 樂을 飽享할 것이며, 我的 自足한 獨創力을 發揮하여 春滿한 大界에 民族의 精華를 結紐할 지로다. 吾等이 茲에 奮起하도다. 良心이 我와 同存하며, 眞理가 我와 並進하는 도다. 男女老少 없이 陰鬱한 古巢에서 活潑히 起來하여 萬彙群象으로 더 불어 欣快한 復活을 成遂하게 되도다. 千百世祖靈이 吾等을 陰祐하며, 全世界 氣運이 吾等을 外護하니, 着手가 곧 成功이라, 다만 前頭의 光明으로 蕪進할 따름이저.

朝鮮民族代表

- 孫秉熙, 吉善宙, 李弼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鎮, 權秉惠, 羅龍煥, 羅仁協, 梁甸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林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麟, 韓龍雲, 洪秉箕, 洪基兆.

1995年度 第28回 定期總會 開催公告

一九九五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자 하오니 隣近 宗親과 相互連絡하시어 多數 參席하심을 要望합니다.

- 一、日時: 一九九五年 五月 六日 土曜日 午前十一時 正刻(雨天不拘)
- 二、場所: 홍릉 영회원 (세종회관 옆) 交通便: 地下鐵一號線 清涼里驛 下車 市内버스 便 청량리우체국 앞 승차 홍릉 正門 앞 下車

- 三、討議案件
 - ① 一九九四年度 決算報告
 - ② 一九九五年度 豫算審議
 - ③ 其他事項

- 四、參考事項: 總會場 홍릉에 들어오시기 前에 大宗會에서 發行한 入場券을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個別入場時 敬老證이 없는 분에 限하여 入場料를 내셔야 합니다.)

- 五、會費: 壹萬五仟원 (通常會費 包含), 當日 晝食 提供함.

一九九五年 四月 日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泰亨 白

一九九四年度 歲入 歲出 豫算 中間 評價

一九九四年度 歲入 歲出 豫算을 泰亨 會長任의 特別한 方針과 指示로 最大限의 緊縮豫算을 編成하여 執行해온 바 會館貸貸保證金 一億 六百三十拾五萬圓中 其間의 爲先事業 關係로 二千七百萬圓이 缺損되었으나, 一九九四年度의 豫算執行을 中間評價해본 結果 保證金 不足金 二千七百萬圓이 完全 確保되었으며, 一九九五年度에는 黑字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는 缺損金을 確保키 爲한 泰亨 會長任의 細密한 關心 속에 자그마한 支出에도 嚴格히 따져 決裁하시고, 때로는 自費를 쓰시면서 一九九四年 大宗會 運營에 心血을 다하신 結果로 생각하는 바이며, 于先 萬宗人에게 一九九四年 大宗會 豫算 中間 評價를 알리는 바입니다. 監事 金在光 白



先塋墓所儀物謹啓

翼元公曾孫 文靖公 諱碩의 五子 牧使公諱 利童의 次子인 禦侮將軍 沱의 墓所가 慶北 尚州郡 靑里面 鶴下里 石堂山 亥坐之原에 安葬인 마公의 次子 諱 彦禧公 後孫 들이 이곳에 世居하여 왔으나 世數過少로 事力이 不逮하여 儀俱多 闕터니 尚州市議會事務局 專門委員인 太圭(太默)의 主管下에 直孫들의 結集으로 1995年 2月 20日 公의 墓所에서 부터 同原局 內에 卑屬 32列位에 謹俱床石하고 墓碑謹豎하니 참으로 자랑스런 운이며 날로 더해가는 崇祖精神은 우리 安東金門의 隆盛이라 아 니할 수 없습니다. 이 날 除幕式에 文靖公 16代孫在 冕賢宗에서 傍祖爲先에 參席하여 卄 거운 讚辭와 稱頌을 아 끼지 않았나 합니다.



文靖公 五子 利童의 次子 御侮將軍 沱의 墓

億齡祖의 墓所復元 豎碣

忠烈公 十代孫 翼元公 六代孫이신 億齡祖는 西紀 1529年(中宗 己丑)에 出生하여 1952年(明宗 7年 壬子)에 文科에 及第 左承旨 知製教 江原黃

海 忠清道 觀察使를 歷任하시고, 1589年(宣祖 31年 戊戌) 九月 十日에 卒하니 享年六十歲이셨으며, 1580年(宣祖 13年) 우리 安東金氏의 最初世譜

管理人을 찾습니다.

忠烈公 할아버지 山所와 齋室管理守護를 해 주던 管理人 李澤鎬氏가 事情으로 因하여 지난 3月 27日 移徙하였습니니다. 其間 20余年을 主客으로 別 物議없이 잘 지내어 大宗會에서는 勿論 우리 子孫들은 安堵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할아버지 墓所守護와 齋室管理며 時享祭에 宿食關係等등 큰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求人에 最善의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宗親들께서 念頭에 두시고 管理人 求人에 協助 있으시기 바라는 바이며 以後 할아버지 山所에 參拜를 가실 宗親들께서는 安東常任齋有司 光得氏나 鳳洙氏께 미리 連絡을 하시고 參禮해주시기 바랍니다. 連絡處 安東 057 1155-11465, 52-11349(光得) 52-16656(鳳洙)

宗會結成

翼元公의 孫 同樞公 諱宗淑祖의 後孫들은 지난 1月 17日 宗會結成을 爲한 發起人 大會를 大林洞所在 翼元公 派會館에서 開催하였는데 百余名의 宗人들이 參席하여 宗會結成式을 盛旺裡에 가졌습니니다. 이날 會長에는 孝昭公宗中會長 俊會氏를, 副會長에는 文靖公宗中 玄默氏와 牧使公宗中 永會氏, 豐讓君宗中 鏞鎬氏를 參席 宗人들의 滿場一致로 選任하

(庚辰譜)를 發刊하시 고 序文을 撰述하시니 安東金門의 世系根源을 始創하신 어른이십니다. 墓所는 京畿 安山 秀岩面 揚山里 揚堡亥坐에 모셔 있었으나 後孫들의 分散移居하여 未能守護로 失傳近於 四十星霜터니 公의 十三代孫 在 岳氏의 探索 至孝로 傍孫 榮俊賢宗의 引導을 받아 鬱蒼한 雜木을 除去하고 墓域을 淨化하여 金石에 勳業과 顛末을 敘述하와 儀物俱石하여 墓碑를 謹豎케 되었다하니 이에 반가움을 禁치 못하 는바 宗報에 揭載하오 니 1995年 5月 7日 除幕式에 많이 參席 하여 億齡할아버지의 英靈에 慰安祈禱하고 勳業에 讚頌을 드립시

他人名義로 있는 宗土를 大宗會名義로 登記를 畢하다

忠烈公 할아버지 位 土六匹地가 個人名義로 登記가 되어 있어 大宗會名義로 登記를 移轉키 위하여 지난 1994年 12月 20日 措置法 登記申請書를 提出하였으나, 檢谷洞 四三四-1番地, 番과 桂平里 四三六-2番地 番은 大宗會에서 事故를 막기 위하여 設定

贊助宗人名單

派	姓名	住所	金額
文	영조氏	경북 영일군 경기도 평택	二〇,〇〇〇
典	晉教氏	충북 청주	三〇,〇〇〇
翼	태관氏	서울시	二〇,〇〇〇
都	창희氏	서울시	二〇,〇〇〇
翼	泰星氏	서울시	二〇,〇〇〇
按	年泰氏	경남 거창	三〇,〇〇〇
按	仁默氏	경남 진해시	五〇,〇〇〇
副	喆光氏	대구직할시	二〇,〇〇〇
翼	容德氏	경북 의성군	二〇,〇〇〇
都	在郁氏	서울시	二〇,〇〇〇
按	병만氏	서울시	二〇,〇〇〇
按	泰榮氏	서울시	二〇,〇〇〇
按	基鉉氏	서울시	二〇,〇〇〇
按	준철氏	강원도 양주군	二〇,〇〇〇
翼	인옥氏	여주군	二〇,〇〇〇
都	위용氏	대구직할시	二〇,〇〇〇
翼	秀吉氏	부산직할시	三〇,〇〇〇
都	태조氏	부산직할시	五〇,〇〇〇
按	철희氏	대전직할시	一〇,〇〇〇
按	태건氏	서울시	二〇,〇〇〇
翼	재철氏	서울시	二〇,〇〇〇
提	창성氏	부산직할시	三〇,〇〇〇
按	대규氏	서울시	三〇,〇〇〇
都	會默氏	부산시	五〇,〇〇〇
提	희윤氏	대구직할시	二〇,〇〇〇
都	華承氏	전남 보성군	二〇,〇〇〇
提	泰秀氏	대전직할시	三〇,〇〇〇
典	光珠氏	경북 경주시	二〇,〇〇〇
提	明植氏	강원도 원주시	二〇,〇〇〇
按	철현氏	충남 천안시	二〇,〇〇〇
都	泰造氏	서울시	三〇,〇〇〇
都	昌信氏	서울시	五〇,〇〇〇
計			九四〇,〇〇〇

始祖의 元祖 出版의 譜族

- 回想社 五大特徵
1. 創立 40週年의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 組版으로 正確迅速한 電算化로 出版界에 一大革新
 3. 編輯, 整書, 出版, 印刷, 製冊을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할수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誤謬가 있을時 組版前 即時發見하는 30餘年間 勤績한 技能者 多數確保
 5. 1,000餘坪以上에 넓은 倉庫의 無料提供으로 1年以上 頒快 便宜提供

回想社 서울支社 開設

서울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開設하였읍니다. 各門中の 收單, 整書, 編輯,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지 하오니 많은 聲援과 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扶譜古書 出版製冊 回想社
 本社: 大田直轄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 ~ 3, 256-1263
 FAX (042) 253-9891 白宅 253-9892
 서울支社: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청호빌딩 403호
 電話 (02) 336-6783 FAX (02) 338-9875

韓國 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本社 社屋 全景

컴퓨터 組版으로 技術革新

組版 印刷 製冊까지 唯一한 綜合工場

風濤

第四十五回

井上靖 著
金崙會 譯

왕과 두 사람의 원장(元將)의 사이에는 지극히 짧은 시간, 일본 정토(日本征討)에 관한 제2군과 제3군의 행동(行動)의 타합이 되었다. 이러한 정토군(征討軍)의 작전(作戰)에 대해서는 각각 정동행(征東行) 중서성(中書省)의 장관(長官)이었고, 각각 동등의 발언권(發言權)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후의三月二十일에 혼도(忻都)·홍다구(洪茶丘)는 군대를 인솔하고 남하하였다. 개성은 그날부터 두 번, 노인과 여자 아이들만의 고향으로 거리로 변했다.

四월 일일에 충렬왕(忠烈王)은 친위대(親衛隊)의 호위(護衛)를 받으며 함포(合浦)·마산(馬山)을 향해서 출발하였다. 왕도 무장(武裝)하고, 친위대(親衛隊)의 군인들도 전부 무장하고 있었다. 왕의 일행이 함포(合浦)·마산에 도착한 것은 四월十五일이었다. 어디가 바다의 출구인가 알 수가 없는 것같이, 반도(半島)의 구릉(丘陵)과 도서(島嶼)로써 구질(區切)된 기다란 형태의 입구(入口)에는, 이이 나라가 한번의 세월(歲月)을 허비하고 백성의 피와 땀으로 건조(建造)한 九백척의 함선(艦船)이 전부(港)에 임박한 구릉(丘陵)의 사면(斜面)에

서 제일 넓은 모래밭이 있는 부락(卜)의 바다가 보였다. 혼도(忻都)·홍다구(洪茶丘)가 인솔한 몽(蒙)·한(漢)군(軍) 삼만, 김방정(金方慶)이 인솔한 고려군(高麗軍) 일만은, 정연(整然)하게 대열(隊列)을 지어 모래사장(沙場)에 정렬(整列)하였다. 고려 정규군(高麗正規軍)과 나란히 수(水)수(手)·초공(稍工)의 일만 오천명도 몇 개의 집단(集團)으로 나누어 역시 거기에 있었다. 충렬왕(忠烈王)은 열병자(閱兵者)로서 병단(兵團)의 앞을 말을 타고 지나갔다. 왕의 바로 뒤에 혼도(忻都)·홍다구(洪茶丘)·김방정(金方慶)을 선두로, 三十명 정도의 지휘자(指揮者)들이 따랐다. 몽한군(蒙漢軍)에 비(比)교하면 고려군(高麗軍)은 복장(服裝)에 있어서나, 휴대(携帶)하고 있는 무기(武器)나 무구(武器)에 있어서도, 또 그의 병정(兵丁)으로서의 거동(擧措)·동작(動作)에 있어서도 대단히 참혹하였다. 또 부대(部隊)를 구성(構成)한 병정의 연령도 구구(區區)하였다. 아무래도 六十을 넘은 노인(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노병(老兵)도 있는가 하면, 어린 불과 열을 가진 소년병도 있었다.

열병(閱兵)이 끝나고 二·三일 후에 전함(艦船)에 수송해 있던 전장병(全將兵)은 배에서 내려서 이 부근에

전(全)艦船(艦船)은 떠날 참이었는데, 천후(天候)의 관계로 그것은 수일(數日) 후로 연기되었다. 발항(發航)의 날은 몇 번이고 발표되고, 몇 번이고 개정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九백척의 선단(艦團)이 함포(合浦)의 항구를 떠난 것은 五월 三일의 새벽이었다. 고려의 군대들이 타고 있는 二백척의 선단(艦團) 가운데 백(一)십이 제일 선단(第一艦團)으로서, 향만(港灣)에서 제일 먼저 자취가 사라져 갔다. 몽한군(蒙漢軍)의 전부의 함선(艦船)이 떠나가고, 제일 후미(後尾)에, 또 고려군의 五(五)십의 함선(艦船)이 배치되었다. 함선이 한 척도 남지 않고 떠나간 뒤, 작은 파도(波濤)가 서로 몸을 부딪치면서 향만(港灣)을 메웠다. 때아닌 겨울이 되돌아온 것같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냉랭(冷冷)한 개인 날이었다.

일본 정토군(日本征討軍)을 떠나보낸 뒤, 충렬왕(忠烈王)은 함포(合浦)에 五월부터 六월까지 주련(駐輦)하고 있었다. 출정군(出征軍)으로부터 연(連)락(連絡)이 있으면 정동행(征東行) 중서성(中書省)의 장관(長官)으로서 거기에 대한 지령(指令)을 내리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六월 왕은 왕고신라(往古新羅)의 고도(古都)였던 경주(慶州)에 내려갔다. 오래된 도읍은 황량(荒涼)해 있었으나, 무인도(無人島)와 같이 이 조용하였다. 신라(新羅)의 왕족(王族)

의 능묘(陵墓)가 점점 (點點)이 평원(平原) 가운데 흩어진 교외(郊外)에 말을 달려서 구릉(丘陵)의 기슭에 있는 불국사(佛國寺)를 방문했다. 여기도 또 황량(荒涼)했지만, 넓은 사역(寺域)의 어디에도 인영(人影)은 볼 수 없고, 석가(釋迦)다보(多寶)의 두 개의 고명(高名)한 석조(石造)의 탑(塔)이 고요한 초하(初夏)의 태양을 쬐고 있었다. 충렬왕(忠烈王)은 경주(慶州)에서 함포(合浦)에 돌아와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가, 七월 일 단개성에 돌아왔다. 그리고 개경(開京)에 약(約) 一개월간 머물러 있다가 七월 또 다시 함포(合浦)로 가려고 정상도(慶尚道)를 떠났다. 그래서 안령부(安寧府)에 연(輦)·왕이 타는 가마(輦)이 머물고 있을 때, 함포의 둔소(屯所)에서 파견된 사자(使者)에 접(接)하였다.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렬왕(忠烈王)의 전연(前年)에 기지(奇地) 많은 일이었다. 그것은 일본 정토군(日本征討軍)의 패보(敗報)였다. 자세한 일은 아무도 몰랐는데, 함포에 흘러온 패보(敗報)의 말에 의하면, 함포에서 출발한 四만(四萬)의 장병(將兵)도, 강남(江南)에서 출발한 범문호(范文虎)가 인솔한 一(一)만 군대(軍)도, 그 전부가 일본군(日本軍)에게 전멸(全滅)되어 버렸다. 왕(忠烈王)이 함포에 이르러 三일 후, 七월 十六일에 김방정(金

方慶)이 탄 배가 항구(港口)에 들어왔다. 배는 대파(大破)하고 군대는 부상하였다. 七월 十九일, 왕은 세조(世祖)에 패보(敗報)를 알리기 위하여 장군(將軍) 이인(李仁)을 원나라에 파견하였다. 이에 전후(前後)해서 패잔(敗殘)의 함선으로 함포에 들어온 것이 몇 척(何艘) 있었다. 그 중의 한 척에 혼도(忻都)·홍다구(洪茶丘)·범문호(范文虎) 등이 타고 있었다. 고려사(高麗史) 김방정전(金方慶傳)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방정(方慶)·혼도(混都)·다구(茶丘)·박구(朴球)·김주정(金周鼎) 등과 출발해서 일본(日本)의 세계촌(世界村)의 대명포(大明浦)에 이르러 통사(通事)·김저(金貯)를 시켜 이에 격유(激諭)시켰다. 주정(周鼎)이 먼저 왜병(倭兵)과 교전(交戰)이 시작되었다. 모든 장병들이 배에서 내려서 같이 싸웠다. 낭장(郎將)·강인(康彦)·강사자(康師子) 등이 이에 전사(戰死)하였다. 六월 방정(方慶)·주정(周鼎)·박구(朴球)·박지양(朴之亮)·형만호(荊萬戶) 등이 일본(日本)의 군대와 접전(接戰)하여 三백여 명을 죽였다. 일본군(日本軍)이 돌진(突進)하여 관군(官軍)이 무너졌다. 다구(茶丘)는 말(馬)을 버리고 도망쳤다. 일본병(日本兵)이 이내 물러가고, 다구(茶丘)도 겨우 위협을 면했다. 그 이튿날 또 전쟁에서 패전(敗戰)을 계속했다. 군중(軍

中)에서 또 큰 역질(大疫疾)에 걸려 죽은 자가 무릇 三천여 명(三千餘名)이었고, 다구(茶丘) 등 여러 번 싸움에서 불리하였다. 또 범문호(范文虎)의 도착 기간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으므로써 군대를 철회할 것을 의논(議論)해 가로되 「성지(聖旨)에 강남군(江南軍)을 동로군(東路軍)과 반드시 이달(二)·岐島에 회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남군이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 군대가 먼저 와서 수차례 싸우고, 배가 썩고, 양식이 다 되었다. 그것을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방정(方慶)·목목히 하고 있다. 순여(旬餘)를 두고 또 상의한 것이 처음과 같다. 방정(方慶)·가로되, 「성지(聖旨)에 이르기를, 석달(石)에 이르기를, 석달(石)량을 주었다. 지금 한 달의 식량이 아직 남아 있다. 남군(南軍)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서 함공(合攻)을 하면 반드시 이겼을 멸망(滅亡)시킬 수 있다.」 고 했다. 여러 장병들은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이미 범문호(范文虎)만군(蠻軍) 九만여 명을 인솔하고 도착했다. 배는 무릇 九백여 척(九百餘艘)이었고, 八월 대풍(大風)을 만나 만군(蠻軍)이 다의사(溺死)했다. 김방정(金方慶)은 오랫동안 조수(潮水)에 따라 들어온 시체가 포구(浦口)를 매우고 있는 정경(情景)은 눈에서 사라질 수가 없었다. 몇 번이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아니 되었다. 시체(屍體)는 전부 반나체(半裸體)의 모습으로 썩어, 머리를 조수(海)에 쏘박은 것처럼 하고 해중(海中)에 빠져 있었고, 시체와 시체가 이에는 창흑(蒼黑)한 조수는 요동(搖動)치고 부딪치고 있었다. 때 마침 조수(潮水)가 기동(動)할 때, 하늘이 솟아 올랐다. 그때마다 조수(潮水)의 물결기는 시체에 떨어졌다. 패보(敗報)가 상도(上都)의 행재소(行在所)의 세조(世祖) 후비(后)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것은 윤(閏) 七월 二十九일이었다. 충렬왕(忠烈王)은 세조의 명(命)에 의하여 반부(潘阜)를 파견해서, 패잔(敗軍)의 장(將) 혼도(忻都)·범문호(范文虎)·홍다구(洪茶丘) 등의 노고(勞苦)를 치하하였다. 八월 二十九일, 세조(世祖)의 칙령(勅令)이 내려 고려(高麗)는 패잔(敗殘)의 군대에 양식을 공급(供給)했다. 八월 말 혼도(忻都)·홍다구(洪茶丘)·범문호(范文虎) 등은 원나라에 돌아가기 위하여 개경(開京)을 출발했다. 이 때부터 원(元)나라와 고려(高麗)는 일본군(日本軍) 내습(來襲)의 경우를 생각하여 거기에 대한 조치(措置)를 강구(講求)하였다. 九월, 원(元)나라는 탐라(耽羅)의 수병(戍兵)을 증가(增加)하였다. 十月 十七일, 고려(高麗)도 금주진변만호부(金州鎭邊萬戶府)를 설치(設置)·김영구(扶恰口)인후(印侯)를 만호(萬戶)로 하고, 같은 김영구(扶恰口) 장순용(張舜龍)을 관군총관(管軍總官)으로 삼았다.

宗中動靜

私財 털어 爲先事業

翼元公 二十二代孫 文靖公 十九代孫인 斗植은 直系祖 十代以下 考墓에 이르기까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年次計劃을 樹立하여 列先祖 爲先事業을 單獨으로 施行해 온 훌륭한 宗人이 있어 紹介합니다. 斗植賢宗은 現在 全北南原市에 居住하고 있으며 十代祖와 九代祖의 墓所는 慶南河東에, 그 以下考位까지는 全北南原과 任實에 모셔져 있는데 스스로의 精誠으로 謹俱墓道하여 先營의 英靈을 安慰하고 墓所守護에도 소홀함

이 없이 崇奉해 오음은 現世에 보기드문 孝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 다. 더욱이 直系爲先 도 어려운 터에 從高祖 爲先까지도 똑같은 儀物로 建豎하였음은 더 더욱 稱讚하고 싶음은 더 요, 이렇듯 우리 安東 金門에 孝行이 두터운 賢宗이 있음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 아 니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萬宗人들께 널리 알려 龜鑑을 삼고 자 본報에 널리 알리며 다 같이 稱頌을 보내주 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宗中行事·消息

先世先史遺跡 影像攝影協助

京畿 龍仁郡 宗親會 에서는 우리 安東金門의 先世先史遺跡에 對한 影像攝影 및 製作事業을 이에 뜻과 熱을 가진 賢宗들의 出資로 自體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바 大宗會 및 派宗會에서 先祖任들의 先史를 原稿紙(200字) 10枚內로 作成하여 주시길 付託하는 바에 이 各派 會長任들께서는 積極協助 있으시길 바랍니다. 製作範圍는 金關智公으로부터 우리 始祖叔承祖 中始祖 忠烈公과 十五派 派祖까지를 目標로 製作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外로는 우리 安東金門의 歷史에 功位가 있는 先祖들의 影像까지 담을 計劃으로 進行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교宗人, 勤政褒章 받다

典書公 二十四代孫 明교賢宗은 서울市 東大門 消防署 地方消防長으로平生을 奉仕의 精神으로 消防業務를 遂行하여 왔음을 認定 받아 1994年 12月 15日 大統領 勤政褒章을 받았습니 다.

昌信宗人初代江 北區廳長에 赴任

忠烈公 24代孫 都評議公 20代孫인 昌信(會字行列)宗親께서 1995年 3月 1日 初代 江北區廳長으로 赴任하여 40萬住民들의 歡迎을 받으며 就任式을 가졌습니다. 昌信賢宗은 忠烈公 齋室建立에 本家古屋 일체를 寄贈하여 爲先 에 功勳하신 분이십니다. 大宗會는 萬宗人을 代理하여 榮轉을 祝賀드립니다.

故金鳳演 大宗會 顧問의 頌德碑 建立

大宗會顧問이셨던 故 金鳳演先生의 頌德碑建立을 忠北槐山郡 曾坪文化院長 송기민氏를 推進委員長으로 하고, 曾坪鄉土文化研究會 會長과 地域儒林 人事등 50余名으로 構成하여 活潑히 推進하고 있는데 頌德碑除幕式은 오는 四月 十六日에 舉行 합니다. 故 金鳳演顧問께서 地域發展에 寄與함은 물론 우리 大宗會 發展에도 物心兩面으로 至大한 寄與를 하신 분이십니다.

사는 이야기

이 글은 世界日報에 連載칼럼을 쓰는 李相憲博士가 쓴 글로 삶과 死의 정립에 도움이 되겠기에 掲載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웅덩이에 고여있 는 물은 썩게 마련이 다. 변화의 시대, 하 루하루가 다르게 변한 다. 그런데 나 혼자만 그 자리에 꼼짝않고 있 다면 그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 어쨌 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을 만들고 오늘보다 나 은 내일을 만들어야 한 다. 그래서 자신의 스 타일을 새롭게 바꿔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를 하지 못한 대기 업들을 보자. 처음에 는 거창한 출발을 했지 만 30년이 지나 살아남 은 기업은 불과 30%가 안 된다. 변화가 없었 기 때문에 쓰러지고 만 것이다. 새해에도 누구에게 나 12달 365일이 주 어졌다. 그러나 그날 이 그날인 사람은 이 위대한 자신을 쓸모없 이 소모하는 빈털털이 가 된다. 이제 열두달 도 새롭게 연출하지 않 으면 안 된다. 2월..이성을 되찾 아 냉철하게 판단을 하 고 행동을 하는 달(우 리는 그동안 감정대로 부딪혀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자) 3월..삼국 시대 김 유신 장군처럼 혁혁한 공을 세우는 달(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4월..사회인으로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 록 힘을 쓰는 달(직장 주의가 비극의 시작임 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5월..오색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뛰고 또 뛰는 달(최선의 행동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준다) 6월..유능한 인재 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 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여 1인자가 되 자) 7월..칠홍같은 어 둠을 밝히는 햇불이 되 는 달(희생 정신만이 새 역사를 만드는 기틀 이 된다) 8월..팔팔한 힘을 쓰기위해 노력하는 달 9월..구조대원처럼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 주는 달(그것만이 내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 다) 10월..시시각각 변 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달 동지달..동지 팔죽 으로 귀신을 쫓듯 잡다 한 생각을 지위버리는 달 11월..선달그믐 마 감 정신으로 끝 마무리 깨끗이 하는 달

華婚

지난 1月 17日 大宗會理事이시며 七義士 記念事業會 會長으로 계신 在鴻氏의 三男 震君의 結婚式을 서울交 通會館禮式場에서 姜 英勳先生의 主禮로 禮式을 올렸습니다.

사 경 회

금·은·보석·시계 도매

금·은·보석·시계와 더불어 20년의 전통 예물 전문점으로 종친들의 심방을 환영합니다.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164-1번지
 店鋪電話 : 272-9557 · 273-0241
 핸드폰 : 011-257-8450
 自宅 : 971-8066 主 金 希 京



향 전 원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1층 1·2호)
 TEL : 783-13166 · 783-13167
 780-18477
 780-18478
 FAX : 552-15327
 552-15327